

## 광주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5세 이하 영유아가정 20만 원 씩 신규 지원 '전국 유일'

광주시가 한파 속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0~5세 양육 가정 등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6만7641가구에 총 34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과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정책에 발맞추는 한편 정부지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두루 확대한 점이 특징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사업(6개 사업 110억 원)에 더해 231억 원(국비 57억 원·시비 174억 원)을 추가 확보, 7개 사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 우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7636가구에 75억 원(가구당 20만원)을 투입한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6223가구에 93억 원(가구당 20만 원)을 지원,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영유아 양육 가구에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 지원근거 조례를 긴급 개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260곳을 대상으로 난방비 40만 원을 특별지원한다.

기존 어린이집 냉난방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의 사업도 확대한다. 어린이집은 890곳에 연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을 940곳으로 확대해 20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 1365곳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비 연 18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조일상 기자

## '학생없는 전남' 중·고 2개교 교문 폐쇄

20개 초교 휴교... "중·고 휴교 이례적... 학생감소 현실화"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 본교가 수십년만에 문을 닫는 등 전남 지역 학생수 감소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9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3월 1일자로 휴교가 결정된 학교는 초교 3개교와 영암미암중, 고흥영주고 등 총 5개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17개교에서 올해 20개교(분교 포함)로 늘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본교 휴교 결정은 처음 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미암중은 1979년 3월 1일 153명의 학생수로 개교해 지난 2022년 2월까지 3명 포함해 총 2100여명이 졸업했다. 이 중학교는 지난 2021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신입생이 입학하지 않아 최종 휴교가 결정됐다.

3월 1일자 휴교가 결정된 고흥영주고는 지난 1968년 3월 5일 영주중 합고등학교로 개교해 1973년 영주고로 교명을 변경했다. 2022년 제52

회 졸업생 14명(총 6500여명)을 끝으로 학생이 없어 교문을 닫았다.

휴교 결정 이후 3년동안 학생이 없을 경우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

또 전남지역 학생수 감소는 각종 교육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22년도 498개원에서 2개원이 준 496개원이며 학급수는 1243개에서 1239개로 4개 감소, 학생수도 1만6285명에서 673명 줄 1만5612명으로 집계됐다.

감소폭이 가장 큰 초등학교 학급수는 5381개에서 5350개로 31개가 줄었으며 학생수는 9만238명에서 8만7036명으로 3202명이 감소했다.

【박종배 기자

|                  |     |
|------------------|-----|
| 광주시 올해 도시 빈집 정비  | 2면  |
| 군공항 특별법 통과 한목소리  | 3면  |
| 전남 교통사고 사망 역대 최저 | 12면 |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 실내 마스크 권고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 실내 마스크 권고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3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을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된다. /뉴스

## 실내마스크 벗는다...학교도 '노마스크'

오늘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전환

"4년만에 마스크 벗고 수업" 교육청, 의무→자율

광주시는 지난 26일 개정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의 세부내용에 따라 27일자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유지,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집중률 달성 등 관련 참고지표 충족으로 실내 마스크 1단계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또 국내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 등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으로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고위험군(60세 이상·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지하철·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학생들도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학여행·행사·통학차량 등에서는 의무 착용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30일부터 학교·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함에 따라 학교장과 학원장의 재량에 따라 교실 등에서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선 학교들은 현재 겨울 방학 중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일에 등교를 하는 광주지역 학교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0개교이다. 초등학교는 오는 3월 2일 개학한다.

또 초등학교 145개교에서 4200여명의 학생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도 중·고등학교 개학은 다음달 6일 이후로 파악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418개교에서 9964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 통학버스와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는 교실, 강당 등의 합창수업, 실내체육관 관중석, 실내 입학식·졸업식 등의 행사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학생 대부분은 교실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고 싶어 한다"며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2019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